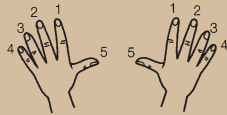




## 수화를 배워봅시다



**Tip** 수화는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표정과 동작의 세기, 길이에 따라 나타나는 뜻에 차이가 있습니다. 음성언어에서 음의 고저, 장단 및 강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정과 동작 등으로 표현한다면 더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수 **서울아산병원 수화동호회**

## 이틀 전부터 배가 아픕니다.



〈이틀〉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 관자놀이 옆에서 약간 밖으로 내민다.

〈전〉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세워 등을 댔다가 오른손만 안으로 당긴다.

〈부터〉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손 위에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오른손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배〉 오른 손바닥을 배에 댄다.

〈아프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약간 오므린 오른손을 좌우로 흔든다.

##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 5지만 잡고 편 왼손의 1·2·3·4지 둘레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한 바퀴 돌린 다음, 두 손바닥으로 배를 스쳐 올린다.

〈기다리다〉 오른손을 'ㄱ'자 모양으로 구부려 끝이 약간 안으로 향하게 하여 손가락 등을 턱 밑에 댄다.

〈마음〉 오른 주먹의 1지 끝을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다.